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31·왼쪽)이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1라운드 풀럼과의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도움·케인 골 '44골 합작'

토트넘, 1-0 풀럼에 승리

케인은 토트넘 266골 최다 타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31)이 '단짝' 해리 케인(30)의 '역사적인 골'을 도움 시즌 3호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풀럼과의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1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추가시간 케인의 결승골을 도와 토트넘의 1-0 승리에 징검다리를 냈다. 이로써 손흥민은 리그 3호 도움을 기록하며 시즌 공격포인트를 4골 3도움으로 늘렸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넣은 2골을 더하면 공식전 6골 3도움이다. 손흥민은 전반 46분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공을 받아 중앙의 케인에게 전달했고, 케인은 페널티아크에서 오른발 터닝 슈팅을 골대 오른쪽 자갈자리에 꽂았다.

이로써 EPL 역대 최다 골 합작 기록을 보유한 손흥민과 케인은 이 기록을 44골로 늘렸다. 또 케인은 1950-1960년대 최고 골잡이였던 '전설' 지미 그리브스와 토트넘 공식전 최다 266골 타이 기록을 썼다. 케인은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골잡이로 역사에 남는다. 케인이 이날 2선 공격수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추가 골 기회를 모색했지만 더는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후반 31분 히사롤리송과 교체됐다. 케인과 손흥민의 합작골이 터지기 전까지 토트넘은 고전했다. 토트넘은 중원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잘 연결되지 않아 공격 전개에 애를 먹었고, 풀럼은 오른쪽 풀백 케니 테이트, 왼쪽 공격수 윌리안의 코너킥을 앞세워 토트넘 수비진을 괴롭혔다. 전반 19분 크로스에 이은 풀럼 해리슨 리드의

논스톱 슈팅이 토트넘 골키퍼 위고 요리스에게 막히고, 6분 뒤 풀럼 스트라이커 알렉산더 미트로비치의 헤더는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다. 손흥민은 전반 28분 중원에서 경합을 벌이다가 테이트의 발목을 밟아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다. 그가 올 시즌 리그에서 받은 첫 카드이자 공식전 2번째 카드였다. 토트넘은 전반 막판에 흐름을 타고 상대 진영을 몰아쳤는데, 이때 손흥민의 패스와 케인의 마무리가 번뜩였다. 후반전 살얼음판 승부를 이어간 토트넘은 결국 추가골을 올리지 못했다. 후반 13분 케인의 문전 헤더가 풀럼 골키퍼 베르트 레노의 선방에 막힌 게 아쉬웠다. 2연패에서 탈출한 토트넘은 그대로 5위(승점 36·11승 3무 7패)에 자리했다. 1경기를 덜 치른 4위(승점 39·12승 3무 5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격차는 승점 3이다. 풀럼은 7위(승점 31·9승 4무 8패)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광주FC 공격의 핵심 산드로 "K리그1서 새 역사 만들겠다"

광주 첫 외국인 선수 부주장
이정호 감독과 호흡도 척척
"상대 수비에 '악몽'이 되겠다"



산드로

산드로가 공격의 핵심이자 부주장으로 광주FC의 2023시즌을 책임진다.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쿼터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선수는 K리그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 1부 리그로 복귀한 광주는 5명의 '외인 부대'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시즌 중반 팀에 합류해 차원이 다른 공격력을 보여준 산드로와 공·수에서 부지런히 활약을 해준 아론이 그대로 광주를 지키고 알바니아 출신의 '특급 용어' 아사니, '브라질 피니셔' 토마스,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의 티모가 새로 가세했다. 외국인 선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만큼 이정호 감독은 K리그 적응을 끝낸 산드로에게 부주장 역할을 맡겼다. 광주 역사상 첫 외국인 선수 부주장이자. 주장 안영규, 또 다른 부주장 이순민과 광주를 이끌어 가게 된 산드로는 "주장이나 부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역할을 맡게 돼 행복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주장 역할을 잘하겠다"고 밝혔다. 5명의 외국인 선수는 능력은 물론 국적·언어도 다르다. 산드로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5개 국어를 하는) 토마스가 영어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훈련할 때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며 "외국인 선수들이 처음 광주에 왔을 때 집에 초대해 와이프와 브라질 음식을 대접했다. 지난해에는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는 한국인 선수들도 초대해서 같이 저녁도 먹고 함께 하고 싶다. 선수들과 단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엄지섬은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린 선수들도 실력이 있다. 이 선수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밑거름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지 확고하게 정해야 한다. 어렸을 때 나는 항상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했고, 해가 지날 때마다 목표를 정하면서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유형이었다. 축구 선수라고 축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다. 항상 집중해서 꾸준히 목표한 지점에 올라가야 한다"고 어린 선수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도 보여줬다. 그러던 와중에도 산드로의 역할이 막중하다. 산드로는 지난해 19경기에 나와 7골 4도움을 기록하며 후반기 질주를 이끌었다. 산드로는 "문화적인 차이, 사람들의 차이는 크게 못 느꼈다. 대신 한국 축구 스타일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다. 한 달 정도 적응하면서 편해졌다. 게임에 대한 텐션이나 육체적인 부분이 힘들었다. 유럽에 있을 때는 다이나믹하게 패스를 많이 주고

받으면서 왔다 갔다 했다. 이곳에서는 K리그2이기도 하고 공격하고, 수비하고, 공격하고, 수비하고 그런 느낌이었다"며 "빠르게 움직이는 게 많은 도움은 된다. 또 부딪히고, 몸싸움하는 것을 즐겨서 새로운 축구가 좋았다. 상대 선수들이 귀찮게 하고, 나도 대응하는 부분이 재미있었다"고 K리그 첫 시즌을 이야기했다. 이정호 감독과의 호흡도 '척척'이다. 산드로는 "감독님의 스타일 대로 다 같이 공격하고, 다 같이 수비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비를 먼저 하는 것이다"며 "수체를 많이 내주시는 데 그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줄 아니냐 그러는 것이고, 팀과 선수 모두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그런 부분이 너무 좋다. 게임할 때 무섭고, 임팩트 감독님이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큰 형, 삼촌 느낌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반 유난히 골문이 따르지 않았던 산드로는 부족했던 운과 골을 시즌 중반 변화하겠다는 각오다. 산드로는 "만약에 골문이 다 따라줬다면 올해 이곳에 있기 힘들었을 것이다(웃음). 지난해 운이 없어서 안 들어갔던 골들이 올해 한 번에 들어가 주면 좋겠다"며 "작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가 어떤 선수이고,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는 보여준 것 같다. 특별히 목표하는 수치를 정하지는 않는데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광주는 경기적으로 확실하게 짜증나는 팀이 될 것이고, 많은 팀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승격하고 잠깐 놀러 온 팀이 아니다. 항상 싸울 것이고 상대를 귀찮게 할 것이다"며 "또 작년에 상대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느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고 싶다.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상대 수비수에게 악몽이 되는 공격수가 되겠다는 것이다. K리그에서 광주가 좋은 역사를 만들면 좋겠다. 그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출신 안세영, 인도오픈 배드민턴 우승

세계 1위 '속적' 야마구치에
첫 세트 내주고 2-1 역전승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21·삼성생명·세계랭킹 4위)이 2023 인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속적' 야마구치 아카네(26·일본)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광주 출신 안세영은 22일(한국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1위 야마구치에게 2-1(15-21 21-16 21-12)로 역전승했다. 1세트를 내준 안세영은 2세트 12-12에서 연속 득점으로 앞서나간 뒤 끝까지 리드를 잃지 않았다. 기세를 잡은 안세영은 3세트에선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8-8에서 4연속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였고 17-12에서 또다시 네 번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를 끝냈다. 이로써 안세영은 일주일 전 말레이시아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패배를 안겼던 야마구치에게 시원하게 설욕했다. 당시 1세트를 이기고 2·3세트를 패했던 흐름을 그대로 돌려줬다. 또 지난해 5월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 4강전 승리 이후 약 8개월이자 5경기 만에 야마구치를 상대로 거둔 값진 승리이기도 하다. 통산 전적은 6승 11패가 됐다. /연합뉴스



안세영이 22일(한국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3 인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1위 야마구치를 꺾은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폭' 안우진 두둔 ... "한국은 용서 쉽지 않아" 추신수의 소신 발언 거센 '역풍' 불렀다

한국 야구대표팀과 관련한 추신수(41·SSG 랜더스)의 소신 발언이 팬들의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현재 자택에 있는 미국 텍사스주에 머무는 추신수는 최근 델러스 지역 한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SSG에서 프로 인생 처음으로 우승한 뒷배기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 구성 등과 관련한 생각을 밝혔다. 유튜브로 올라온 추신수의 인터뷰는 24일 현재 조회수 1300개를 찍었다. 한국의 야구팬들도 설 연휴 기간 언론 등으로 추신수의 발언을 접했다. 그러나 반응은 썩 좋지 않다. 추신수는 국제 대회에 새 얼굴이 많은 라이벌 일본을 거론하며 사건을 전제로 이번 WBC 대표 선발 때 당장 성적보다는 미래를 위해 안우진(키움 히어로즈), 문동주(한화 이글스) 등 젊은 투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최고 투수로 성장한 안우진은 기량과 별도로 과거 고교 시절 학교 폭력(학폭) 가해 이력 때문에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다. 문동주는 실력에서 경쟁자들에게 밀렸다.

추신수는 안우진이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이와 관련한 징계도 받았는데도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면서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혔다. 아울러 안우진처럼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후배를 위해 선배들이 나서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했다. 이 발언이 팬들의 정서를 거스른 것으로 보인다. 안우진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팬들에게 과거 잘못된 용서를 구했지만, 확실하게 일을 매듭짓지 못한 탓에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이강철 대표팀 감독과 WBC 기술위원회는 야구 외적인 문제로 대표팀이 흔들릴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자 고심 끝에 안우진을 발탁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학폭' 이력이 팬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 정서상 안우진의 대표팀 승선은 애초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대스타로 성장하고 KBO리그에서도 2년을 뛴 추신수가 이런 국내 분위기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자 팬들은 유튜브 댓글창 등에 불만을 쏟아냈다. /연합뉴스